

童詩, 비행기、

머리에 푸로펠라가,  
연차간 풍채보다,  
더— 빨리돈다.

×

따에서 오를때보다  
하늘에 높이떠서는  
빠르지 못하다  
숨결이 찬모양이야.

×

비행기는—  
새처럼 나래를  
펼럭거리지 못한다  
그리고, 늘.—  
소리를 지른다.  
숨이찬가바.

一九三六 十月 初

비행기

머리의 프로펠러가  
연차간 풍채보다  
더— 빨리 돈다.

땅에서 오를 때보다  
하늘에 높이 떠서는  
빠르지 못하다  
숨결이 찬 모양이야.

비행기는—  
새처럼 나래를  
펼럭거리지 못한다.  
그리고, 늘—  
소리를 지른다  
숨이 찬가 봐.

1936. 10. 초